

우정 IT 해외진출 전략

이 용 석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7월 1일 출범 이후 IT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존 노동집약적 우편서비스를 탈피하고자 2004년 7월 웹기반(e-Post)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을 통해 8단계의 실시간 중추적서비스, PDA를 통한 집배원 업무경감, e-송달증, e-배달증 제도로 종이문서 폐지, 법원 특별송달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구현하여 IT기반의 우편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배달결과를 고객에게 SMS로 알려주는 mobile기반의 m-POST를 서비스하고 향후, 유비쿼터스기술을 우편서비스에 접목한 u-POST를 구현함으로써 우정 IT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한국 우정의 기술·장비 및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인증과 시상을 획득하였고 구소련 및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국의 우편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의 선진 경험과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의 우정 분야 IT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민간 업체들이 시스템 및 제품등을 공급하면서 나름대로 산업경쟁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한국의 우정 정책과 첨단 우정 IT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국내 업체의 우정 제품 등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는 금년 3월부터 수출지원 전담반을 신설하고, 수출지원협의회, 수출지원추진단 활동, 해외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 등의 다양한 『우정 IT기업체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우정 IT기업체의 수출지원을 통해 관련 IT기술이 성장/발전함으로써 우정분야의 한국 IT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 잠재력의 한 동인이 되어가고 있는 점에 전 현업 관서에 종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관련 부처와 기업 및 단체 등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자 그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I. 서론: 전 세계적인 우편 사업의 IT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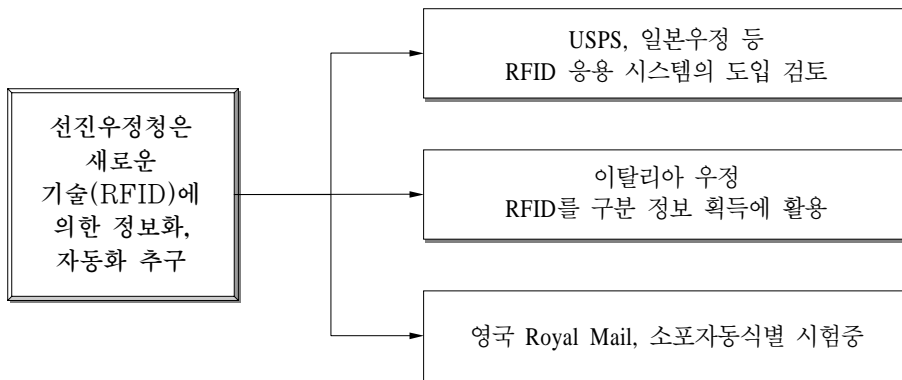
최근의 세계 우편사업은 우편시장 개방과 민영화 추진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원가절감과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편자동화와 정보화에 대하여 각 국 우정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우편현대화 사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편시장의 개방과 민영화 추진에 따라

우정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붕괴되면서 고객 중심 및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작업환경을 효율화시키려는 노력으로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우편 서비스 창출과 작업 시스템의 IT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정(USPS)을 비롯한 선진 우정청은 우편물의 구분과 종추적에 이용될 차세대 바코드 기술인 주파수 식별장치(RFID)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4세대 바코드로 알려진 이 기술은 기업우편 발송자들이 수십억통의 우편물을 동시에 구분하고 종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소교정 및 배달 확인같은 특별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선진우정청의 우편분야 정보화 추진내용》

- 우편시스템 운영관리 분야와 우편물 종추적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을 운영
 - 미국: GIS, GPS 기반 관제시스템 운영 및 물류망 최적화 기반 구축
 - 캐나다: 국가우편 중앙관제센터 운영, GIS기반 집배관리 시스템 운영
 - 일본: GIS, GPS 기반 집배업무 시스템 개발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국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물류망 최적화 시스템 운영
- 주파수 식별장치(RFID)의 도입 추진



개발도상국도 민영화와 시장 개방추세에 살아남기 위하여 낙후되어 있는 우편시스템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우편 시스템 전반에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배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우편시스템의 자동화 및 전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특히 구소련 및 아시아지역의 우정청에서 통신 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우정

분야에서도 선진 IT를 토대로 하여 구축하고 있는 우편 및 금융 부문의 IT 시스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국의 우편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현대화 계획 수립에 전문 컨설팅을 요청해 오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우편사업 부문의 IT화 추진현황

1. 추진 현황

한국은 최근 눈부신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메일(e-mail), 블로그, 모바일 등 편리하고 강력한 대체 통신수단이 일반화됨에 따라 2003년을 기점으로 통상우편이 매년 5%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소포와 국제특급(EMS) 시장은 민간사업자들과의 치열한 경쟁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우정은 첨단 IT기술을 도입하여 우편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시킴으로써 우편사업 구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탈바꿈시키고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 하였다.

우선 한국우정은 2001년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 2단계로 나누어 3년간 총 162억원을 투입하여 웹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을 구축하였다. PostNet은 접수, 운송, 구분, 배달에 이르기까지의 우편물류업무를 지원하고 고객관계관리(CRM) 기능과 실시간 종추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PostNet이 구축됨으로써 종전에 비실시간으로 제공되던 2~4단계의 종추적 정보를 8단계 이상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전 집배원에게 16,000여대의 PDA를 보급하여 배달업무의 디지털화를 실현시켜 배달목록 작성 및 배달 결과 입력작업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씩 단축시켰다. 또한 전국 우편물 접수 및 배달 물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할 수 있게 되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하여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PostNet과 함께 한국우정은 인터넷 우체국(ePOST)시스템을 야심차게 추진하였다. e-POST에서는 전국 각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고 우체국 택배와 EMS의 예약 접수, 전자우편 접수, 우편물 종적 조회,

우표 판매 등 각종 우편 서비스를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제1단계(2001. 12~2003. 8)》

《제2단계(2003. 8~2004. 7)》

기본물류 운영시스템	생산성 향상 전략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업무(13개 시스템): 통합접수, 운송, 집배, 종적추적, 통합플랫폼 등 ○ 소요예산: 81억원(S/W 51억원, H/W 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업무(9개 시스템): 택배물류, 고객관리, 우체국쇼핑, 우체국콜센터 등 ○ 소요예산: 81억원(S/W 51억원, H/W 30억원)

〈표 1〉 한국의 우편정보화 특성

접수창구 다양화	○ 다량우편물 이용고객과 시스템 연계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정보 및 배달정보를 실시간 전송
우편물 가시성확보	○ 종전에 비 실시간으로 제공되던 2~4단계의 종추적정보를 8단계 이상 실시간으로 제공
집배원 부하 경감	○ 전 집배원에 16,000여대의 PDA 보급을 통해 배달업무의 디지털화를 실현시켜 배달증 작성 및 배달결과 입력작업 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단축
One-stop 우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 콜센터(1588-1300) 운영으로 One-stop 우편서비스(우편민원, 택배신청, 쇼핑주문) 제공 ○ 배달예정시간, 배달결과는 즉시 고객 휴대폰에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통계 경영 기반 마련	○ 전국 우편물 접수, 운송, 배달물량을 매일 실시간 자동 집계할 수 있게 되어 통계데이터 기반 경영환경 조성

한국우정의 최종 전략적 목표는 u-Post의 구현, 즉 우체국 이용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포스트(Ubiquitous Post)의 실현이다. 주파수 식별 장치(RFID) 기술을 우편물류에 적용시켜 현재 바코드 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우편물류시스템의 실시간화를 앞당기고 지아이에스/지피에스(GIS/GPS) 기술과 모바일 기술 등을 적용하여 우편 소통 및 장애상황 그리고 운송차량을 실시간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류종합관계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즉, 지속적인 우편물류 혁신과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구축으로

바코드 기반의 우편물류 정보화를 완성시킨 후 향후 IT 기술발전에 따라 RFID 기반 u-Post 수준으로 지능화시키는 것이다.

〈표 2〉 한국의 u-Post 구현 단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우편물류 기계화 (Mechanization)	우편물류 정보화 (Computerization)	우편물류 최적화 (Optimization)	우편물류 지능화 (Intelligent Real-Time Log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업무 전산화 ○ 구분기 등 자동처리 설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스템 통합 ○ 물류운영 정보화 ○ 실물과 정보의 일치 ○ 정보화 기반 구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운영 최적화 ○ 자동화/정보화 통합 ○ 정보와 업무의 유기적 통합화 ○ 정보화 성숙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물류 협업체계 ○ 실시간 물류계획 및 통제 ○ 정보의 전략적 활용에 의한 실시간 의사결정 ○ 정보화 완성단계

또한 한글 문자 인식 기술을 적용한 한국형 순로구분기를 개발 보급하여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배달순로 구분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배달업무 선진화를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표 3〉 한글 주소 인식 기술 기반 우편 배달 순로 구분 자동화 시스템 개발 계획

- 한글주소 인식시스템 개발(ETRI): 2002년 ~ 2005년
- 한국형 실용 순로구분기 개발: 2004년 ~ 2005년
- 현장 적용 테스트: 2005. 6월 ~ 현재까지

이와 같이 한국우정에게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준 것은 바로 첨단 IT 기술이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편사업에는 하나의 위협으로 작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2. 한국 우정 IT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한국은 매년 개최되는 세계 우정박람회(Post-Expo)와 2005년도 제9차 만국우편연합(UPU)

서울총회 등 국제회의 및 세계 우편장비 전시회 등을 통해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우정 IT정책과 기술력 및 시스템 등을 소개하기 시작하였고 해외 우정사업자들은 한국우정 IT기술과 우편장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던 차에 지난 5월초 영국의 세계적인 우편컨설팅사인 트라이앵글 매니지먼트 서비스사 (Triangle Management Services Ltd)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세계 우편 시상식(World Mail Awards)에서 전체 10대 부문중 전자상거래와 기술 등 2개 부문에서 한국 우정의 인터넷 쇼핑몰과 우편물류시스템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세계우편상은 매년 우편분야에서 고객만족, 기술 혁신, 전자상거래 등 총 10개 분야에서 우수 우정청 및 우편 관련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편분야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이어서 우편물류시스템은 8월초 공공 기관 최초로 IT 분야 대표적 국제품질 인증 지표인 CMMI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rgration) 레벨 3를 획득했다. CMMI는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SEI)에서 개발한 모델로서 소프트웨어 품질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과 운용, 프로세스 성숙도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종합 평가하는 국제 공인 지표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CMMI 레벨 3 획득은 웹 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이 솔루션, 제품통합, 프로젝트 통합 관리 및 위험 관리 등의 표준 프로세스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초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우정 IT기업체들로 구성된 상반기 우정 IT협력단이 말레이시아 우정을 방문하였을 때 말레이시아 우정 총재는 한국우정의 인터넷 쇼핑몰 구축과 고객만족 관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한국에 말레이시아 우정의 실무 전문가를 보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배우게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5월말에는 서울에서 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개최된 “세계 정보통신 기술 정상회의 (World ICT Summit)”에 참석차 한국에 왔던 알제리 부제마 하이꾸르(Boudjemaa HAICOUR) 우정·통신부 장관은 짧은 체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본부장을 예방하여 알제리 국내의 각 지역별 우편 자동화 구분 기기를 도입하는 데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아울러 전자우편과 금융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선진 경험 전수를 강력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 우편회의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옛날과 달라진 모습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지난 4월말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었던 UPU 주관의 고위급 회의에서 UPU 사무국측은 한국우정에

게 “우편 사업에서의 첨단 IT 기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요청하였고 당시 우편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많은 참가국들의 관심과 질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영국의 저명한 우편·물류 컨설팅 회사인 테라핀(Terrapinn)사가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아·태 지역 우편 국제회의에 한국 우정의 우편 사업단장을 VIP 자격으로 패널 주제 발표자로 초청을 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4월말 UPU 고위급 회의당시 사회자였던 스위스 공과대학의 핑거(M. Finger) 교수가 우편사업단장의 발표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고 주최측인 테라핀사에게 한국 우정의 우편사업단장을 패널주제발표자로 초청하도록 강력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는 아·태 지역의 우편국제기구인 아·태우정연합(APPU)은 프랑스 라포스트(La Poste)사와 공동으로 “미래의 우체국 판매(retail) 사업”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통보해 오면서 한국우정의 우편사업단장을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초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11월중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UPU가 주관하는 세계우편 전략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바, 이 회의는 UPU 190개국 회원국 정부의 우편분야 장관급 인사와 우편 관련 기업의 CEO 등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우정의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우편서비스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대한 특별 주제 발표를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우정분야에서도 IT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Ⅲ. 우정 IT 분야의 민간 산업계 경쟁력

1. 국내 우정 IT기업의 태동

상기와 같은 정부 차원의 우정 분야 IT 정책을 기반으로 삼아 국내 민간 업체들이 시스템 및 제품 등을 공급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즉 한국 우정에서 '90년부터 '02년까지 추진한 22개의 우편 집중국 구축사업과 '04년도 7월에 완료한 우편물류시스템 구축에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우편정보시스템, 순로 자동구분기, 통합프린터기, PDA 등 우편장비와 시스템 등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생겨 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우정 IT 제품과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약 30여개가 되며 주요 업체들의 사업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4〉 한국 우정 IT기업체 주요 품목(사업) 내역

기업체 명	품목 및 사업 내역
(주)삼경하이텍	- 무인창구시스템, 구분기, 접수기기
(주)을지	- 자동 소인기(ACM86), 자동 파속기(Posmac) - 우편물 운반차(Roll Pallet), 순로구분기(ELS70) - 특수우편물구분기(RMS36)
(주)아침정보기술	- 우편창구용 통합 프린터, 우편창구용 순번대기시스템 - 방문소포용 모바일 프린터, 소포연계시스템 및 타건시스템 - 지능형 창구 시스템(키오스크), 창구 이미지 시스템(스캐너) - 다기능 금융 단말기(핀패드)
(주)대성산업	- OCR, BCR, 구분기(DSS100)
(주)빅솔론	- 영수증 프린터(SRP-350, SRP-275), 라벨 프린터(SRP-770)
(주)이씨오	- RFID Middleware: Smart EPC, RFID이용 자동 소포구분기 - 우편체결기, 우편물 발송/도착 시스템, 집배용 휴대형 RFID리더 - 소포번호표 발급용 RFID 프린터
(주)이노텔리텍	- 산업용 PDA: MC1000, MC2000, MC3000 시리즈
(주)웰텍시스템	- 우편물봉합기
LG CNS	- 우편물류 시스템 개발비, 우편물류 시스템 장비
SK C&C	-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대우인터내셔널	- 알제리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CAMBOSIANA	- 캄보디아 우정현대화 사업 컨설팅

2. 국내 주요 우정 IT업체의 해외 경쟁력

우리 국내 업체들은 크게 우편 장비와 정보시스템 분야로 나누어 특히 무인우편 창구 시스템, 집배용 PDA, 라벨 프린트기 등은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 삼경 하이텍이 개발한 우편 무인창구 시스템은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DHL의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 납품 예정이며 이노 텔리텍의 집배용 PDA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았고 통합 프린터 및 라벨 프린터 등도 유럽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편물류통합시스템은 선진 우정청들과는 달리 웹기반으로 구축되어 사용이 편리하고 실시간 종추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서 LG CNS가 이를 모듈화하여 아시아 시장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우정 IT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 우편시장과 유럽 등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우정산업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현황과 해외 진출 타겟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표 5〉 주요 우정산업체의 해외진출 추진 현황

업체 및 품목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삼경하이텍: 무인창구, Briefstation	홍콩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을지: 구분기, 파속기, 소인기	일본, 인니, 베트남	독일		
빅솔론: 라벨 프린터, 영수증 프린터	싱가폴, 인니,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	미국, 콜롬비아, 칠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호주
아침정보기술: 통합프린터, 다기능 창구	인니, 대만, 일본	영국, 스위스, 그리스	미국, 베네주엘라	
웰텍시스템: 우편물 제작기	중국, 대만, 홍콩, 말련	영국,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남아공
이노텔레텍: PDA	말련		미국	
대성산업: 구분기		프랑스, 터키		남아공
LG CNS	말련, 베트남			

〈표 6〉 해외진출 Target 지역별 우편장비

아시아 등 우정개발도상국	중국	유럽 등 우정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소인기, 파속기, 프린트기 등 ○ 통합정보시스템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배용 PDA, 순로 구분기 등 ○ 통합정보시스템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 우편창구 시스템, 집배용 PDA, 프린트기 등

IV. 해외 진출관련 애로 사항

많은 우정 IT 업체들이 개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해외 진출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통신 분야와는 달리 우정분야는 우선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정청 등의 국가기관이 주요 고객이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우정청의 현 실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시장 개척이 용이한 데 지금까지는 주요 우정청에 대한 현황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요 고객들인 해외 우정청 관계자들에게 제품 홍보 및 기술 소개가 절실히 필요한 데 해외 우정청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부재함으로써 업체들이 우정청 주요 결정권자 및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정사업이 국영사업으로서 국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민간 업체가 정부 기관을 접촉해서 납품 상담을 전개해가기가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한편으로 한국의 우정산업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해외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IT는 통신분야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며 우리 스스로도 우정 분야는 IT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한 점도 있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한국 우정 IT에 높은 관심을 보여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우정의 선진상뿐만 아니라 국내업체의 제품 및 시스템들을 국내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홍보하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동반 홍보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업체들의 수출 협상에서 제품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V. 국내 우정 IT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체제 구축

1. 지원 전담반 신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와 같이 기업체들이 그 동안 자체적으로 해외 우정청을 대상으로 자사 생산제품의 홍보 또는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 주로 겪었던 ①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협력 채널 및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 ② 우정 IT기술 및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미흡, ③ 기업체의 B2B, B2G 등의 수출상담 기회 마련 곤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2월 “우정 IT 기업체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3월에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팀에 수

출지원 전담반을 신설하여 우정 IT기업체의 수출지원과 관련된 협력업무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전담반은 해외 우정청에 대한 정보 DB를 구축하고 우정청간에 협력 공식 창구를 마련해 나가 고 있으며 격월제로 산/연/관으로 구성된 “우정 IT업체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및 우정 IT 협력 단 구성 파견 등 다음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해외우정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정청 공식 협력창구 개설 및 접촉 지원
- 한국우정 및 우정 IT기업체의 홍보 다양화 및 활성화
- 산·연·관 공동 연구개발시 시범 사업 수립 및 지원
- 해외진출 유망국가에 「우정 IT협력단」 파견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UPU 서비스 품질 기금(Quality Service Fund) 등 파이낸싱 협조
- 세계 우정 박람회(Post-Expo) 등 우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 우정 IT 기업체 수출 지원 협의회 운영

우정 IT 기업체,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ETRI), 우정사업본부 등 산/연/관 공동으로 수출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례 회의체인 “우정산업체 수출지원협의회”를 만들고 지난 '05. 12월 이후 8월까지 5차례 개최하면서 수출지원업무와 관련된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우정 IT 기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기업체의 수출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출된 주요사항을 우정 IT 수출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우정 IT 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 개최시기: 격월제로 연 6회 개최
- 참석대상: 우편사업단장, 국제사업팀장, 우편정보기술팀장, ETRI우정기술연구센터장,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우정 IT 기업체 등
- 협의회 주요내용
 - 우정 IT 기업체 수출지원 방안 논의
 - 해외 우정청 대상 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체 의견수렴
 - 협력단 파견, 우정 IT 세미나, Post-Expo 참가 등의 주요 이슈별 수출업무 지원방안 등 협의

3. 국내 우정 업체 제품에 대한 “전자 카탈로그(e-Catalog)” 구축

우정 IT 기업체의 상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전자카탈로그의 일종인 웹기반의 「e-Catalog」를 구축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회사정보, 상품정보(텍스트, 이미지 정보, 스펙 등) 및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회원관리를 통해 상품을 검색한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기업체에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우정 IT 기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e-Catalog 구축 현황》

- 개요: 우정 IT 기업체 제품의 해외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구축한 홍보 수단으로 기업체 정보, 상품정보(텍스트/이미지 정보, Spec. 등) 및 연락처가 소개된 전자카탈로그
- 도메인명: postalit.epost.go.kr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내에 서브 도메인으로 운영
- 오픈일: 2006. 3. 28.(화)
- 등록정보: 우정 IT 14개 기업체 25개 수출제품
- 주요기능: 홈페이지의 구성은 제품을 등록/관리하는 관리자 기능, 기업체를 위한 카탈로그 관리기능, 고객의 상품조회를 위한 홈페이지 등 3가지로 구성되며, 수출제품의 사용처와 업무목적에 따라 우체국(Post Office), 집중국(Mail Center), 본부(Headquarters)로 분류하여 제품명, 이미지, 개요 중심으로 제품정보를 소개

4. 우정 IT 협력단 파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 IT 기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6년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우정 IT협력단 수출지원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정 IT협력단은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우정 IT 기업체의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서 1차적으로 지난 2006. 5.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장을 협력단 단장으로 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우정 IT 기업체 등 산/연/관 14명으로 구성된 협력단을 파견하여 우정 IT 기업체의 수출협력 지원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상반기 우정 IT협력단 추진내용》

- 개 요
 - 파견 기간: '06. 5. 7(일)~5. 14(일) (6박 8일)
 - 참가자: 우편사업단장, 수출협력담당, ETRI, 우정 IT 기업체 등 14명
 - 대상국가: 말레이시아(5. 7~9) 및 베트남(5. 10~13)
- 활동내용
 - 말레이시아 우정 CEO 예방 및 한-말레이시아 우정 양자회담
 - 베트남 우정차관 예방 및 한-베트남 양자회담
 -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우편시설 방문
- 주요 활동결과
 - 우정청 주요 정책 결정권자와의 수출협력 채널 확보
 - 정부대표단 파견에 따른 신뢰감 확보
 - 우편현대화에 한국 우정의 자문과 한국 우정 IT 기업체의 참여 수용
 - ※ 기업체 홍보 및 수출상담 활동을 산/연/관 연계로 단기에 수행**
 - 한국 우정정책과 기업체 우정 IT 기술의 적극 홍보
 - 산/연/관 협력단 활동을 통해 한국 우정정책 홍보
 - 기업체의 제품설명회를 통한 우정 IT 기술의 적극 홍보
 - 기업체의 B2B, B2G 등의 수출상담 기회 제공
 - 우편현대화에 따른 우정 IT 기업체 참여기회 제공
 - 한국 우정IT 인프라 전수 및 우편기술 제안 등 모색
 - 면담자와 인적 네트워크 유지 및 수출상담 기회로 활용

5. 해외 우정청 우정 현대화 컨설팅 지원 사업

지금까지의 국내·외 수출지원활동은 주로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업체 요청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홍보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협력단 활동을 통해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한국의 우정정책과 기업체의 우정 IT기술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정 IT 기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지원을 위한 타겟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외 우정청의 요청으로 우정 사업본부의 전문가 파견을 통해 우정현대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몽골 우정청으로 그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카자흐스탄 우정현대화 프로젝트(6억불 규모) RFP(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입찰 참여
 - ※ 컨설팅 입찰규모는 미화 8백만 불(약 80억원)로 '06. 10월 말 입찰 예상
 - ※ 국내 SK C&C社가 카자흐스탄 현지 컨설팅 업체인 BIC(Business Initiatives Center)社를 통하여 사업 참여 추진
- SK C&C社 전문가 파견 요청
 - SK C&C가 동 사업의 입찰에 참여 예정인 BIC社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요청받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요청

□ 추진 경과

- '06. 6월 초: BIC社가 SK C&C사에 컨설팅 지원 요청
- '06. 6월 중: SK C&C사가 컨설팅을 지원할 우편분야 전문가 파견을 우정사업본부에 요청
- '06. 7. 18~21(4일간): 카자흐스탄 우정청 실무 관계자 우정사업본부 방문
 - 물류서비스과장 Mr. Rulsan, BIC社 CEO 등 3명
 - 한국 우정 IT현황 청취 및 지식정보센터 등 IT시설방문
- '06. 8. 14~25(12일간): 자동화 및 정보화 전문가 2명 파견

□ 활동 내용

- 우편집중국 건설을 통한 우편업무 자동화 방안 제시
 - 우편물량 파악 및 집중국건설 적지 분석 및 적정 방안 제시
- 우편물류 및 정보화 추진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 카자흐스탄 환경 및 고객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 개발 제안

《몽골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내용》

□ 사업개요

- 몽골 우정청에서 자국의 우정현대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우정사업 본부에 요청('06. 3. 28)함에 따라, 우편분야 전산전문가를 파견
- 파견분야: 우편물류시스템, 인터넷우체국 등의 구축경험 및 업무표준화

□ 추진 경과

- '06. 6월 초: 파견 전문가 KOICA에 추천
- '06. 6월 중: KOICA측이 파견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몽골우정과 협의
- '06. 8. 28~9. 6(10일간):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전문가 및 ETRI 전산 전문가 2명 파견(ETRI는 2개월 파견)

□ 활동 내용

- e-Business 및 체신업무 전산화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현황 및 정보화 방향 분석, e-Biz 인프라 분석, IT 산업 분석
- e-Business 사업 기반 및 선진 우정업무 전산화 구현
 -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 우편사업 및 e-Biz 활성화로 매출 증대

이와 같은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전문가 현지 컨설팅 활동을 통해 한국 우정정책 및 우정 IT기술을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카자흐스탄 및 몽골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으로 한국의 우정 IT시스템을 모델링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우정 IT기업체의 연쇄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나아가 국내 우정 IT기업체의 기술개발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표 7〉 2006년도 해외수출지원 추진계획

세부 계획	일 정
지원전담반 구성 운영	'05. 12월
국가별 우정동향 정보 DB구축	'06. 상반기
우정산업체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05. 12월, 매 격월 1회
산·연·관 우정IT협력단 파견	'06.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산·연 공동연구개발 성과 시범사업 운영 추진	연중
주요 유망국가 우정청 공식협력 창구 설치	연중
Post Expo 전시회 참가 지원	'06. 하반기
우정산업체 영문홍보물 발간	'06. 하반기

VI. 맺음말

2006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우정 IT기업체 주요 수출지원 성과로는 기업체의 해외 홍보채널인 「e-Catalog」의 구축과 우정 IT협력단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기업체가 선호하는 동남아 수출희망국가를 대상으로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 수출협력 활동을 전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정 IT기업체의 실질적인 해외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우정 IT기업체가 자연스럽게 해외 우정청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 IT협력단 활동에 있어 아직까지 방문국에 적절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구매담당 또는 로컬파트너와의 1:1 상담기회 제공 마련 등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우정

IT기업체의 수출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감에 있어서 보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 IT기업체 홍보의 장 마련 지원, 해외 우정청과의 수출협력 채널 확보, 해외 우편현대화 추진사업 및 실무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특히, 발주 등) 파악과 제공, 실무자간 방한 초청 또는 수출희망국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컨설팅 수행 등 다양한 수출지원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도 하반기 우정 IT협력단 파견 추진, 10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 예정인 Post-Expo 참가지원 활동, 카자흐스탄 및 몽골 우정청 우정현대화 컨설팅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체 수출지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정 IT기업체의 성장·발전이 선행되어야 우정 IT정책과 관련 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우정 IT기업체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외교통상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우정사업본부, 「우정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2005. 12
_____, 「Postal Reform in Korea」, 2006. 4
_____, 「우정 IT협력단과 해외 활동계획」, 2006. 5
_____, 「세계 주요국 우정의 개혁과정과 사업현황」, 2003. 11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우리 SI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방안」, 2005.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정기술연구센터, 「우정기술동향」, 2006년 6월호